

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조성 속도

기린대로 BRT 구축 착공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꿀 미래형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린대로 BRT(버스중앙차로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월 착공 이후 시험 굴착 등 현황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가로수 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기린대로 BRT는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교차로까지 9.5km 구간에 구축되며, 시는 내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여의광장사거리~추천대교 △추천대교~기린로전차상가 △기린로전차상가~오목대의 3개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먼저 가로수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이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도로 폭 확보를 위한 보도 후퇴와 기반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내년 4월부터 중앙차로 조성 및 전용 신호체계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BRT 사업은 시내버스가 전용차로를 달리 출퇴근 시간에도 정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꿀 미래형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린대로 BRT(버스중앙차로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상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개인 교통민감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민이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내버스 1대에 약 40명 탄다고 가정하면, 자가용 30대에 맞먹는 수송 효과를 지녀 교통 혼잡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 등 도시 전체에 긍정적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지하철이 없는 대표적인 대도시로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시는 교통 수요 및 예산을 고려하면

지하철과 경전철 등과 같은 새로운 수단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기존 시내버스 효율을 극대화하는 BRT 도입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시는 기린대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2단계 백제대로와 3단계 송전중앙로까지 확장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8.5km의 대중교통축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3단계 BRT 완공시 전주역에서 전주한옥마을,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교통망이 구축돼 관광과 생활 교통 모두를 아우르는 혁신

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공사 기간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전문업체를 통한 교통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사 현황 및 우회경로를 안내하고, 도로변 상가 방문과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그 밖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청춘★별채’ 혁신 청년정책 주목

전주시, 19~21일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우수 청년정책 홍보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전주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청년정책으로 전국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전주형 청년 주거복지 모델인 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 등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지역의 혁신 사례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사회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 26개 중 ‘전주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가 주거

부문에 선정돼 이번 엑스포에 참가하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전주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를 주제로 기본사회 전시관에 참가해 ‘전주, 청년의 힘찬 비상, 발이 되어 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 모두가 빛나는 도시 전주’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기본사회관 내 5개 테마존을 통해 ‘청춘★별채’를 필두로 전주시 청년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한다.

시는 별도의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주시 청년정책 전반을 소개하고, ‘청춘★별채’를 포함한 전주시 청년지원사업 통합 홍보물과 굿즈를 제공하는 등 전주민의 특별한 청년정책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하계월립북 유치 활동과 전주시 우수 정책 홍보도 병행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 5분발언 잇따라



1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종남, 노송, 인후3동)은 한옥마을 인근의 동문문화예술거리가 행정 지원 부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문문화예술거리는 원도심의 대표 거리임에도 빈 점포가 늘며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지원과 관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지정 △행정·상인·예술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은혜정 의원(우어·2, 호성동)은 전

주시 치매환자가 최근 1만2000여 명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치매와 구강 건강의 연관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은혜정 의원은 “치아의 개수와 치매 발병률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전주시 치매 관리에서 구강 건강은 충분히 다루지지 않고 있다”며 “인지선별검사와 연계한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치매안심치과 시범운영, 이동치과진료차량 도입, 치매노인 치과 진료비 지원 현실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영화영상 제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전주는 국제영화제를 기반으로 영상산업이 성장했지만 장작 ‘전주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 콘텐츠는

많지 않다”며 “관광 활성화와 도시 도시 브랜드 향상, 시민 자긍심 제고 등 경제·문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사례 기반 영상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 생활사·구술사 기반 스토리 발굴 및 공모사업 신설과 △스토리가 실제 제작으로 이어지는 창작·제작 네트워크 구축 △전주사예 기반 작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은 도내 보훈대상자들이 현재 광주 보훈병원까지 이동해 진료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훈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주에는 종합병원 수준의 위탁병원이 한 곳 뿐이며, 위탁진료 지원 규모도 보훈병원

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전북도 전체 보훈대상자를 고려할 때 전주시 보훈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위한 전주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 인구는 최근 40개월간 2만6000명이 감소했고 그 중 70%가 청년층”이었다며 “사회조사에서도 30·40대의 출산·육아 만족도와 생활 여건 전반의 체감도가 매우 낮아 청년·가정 세대의 정주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주의 출산·청년지원 정책이 유사 도시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며 정책 우선순위가 실제 청년 수요와 맞지 않는다”며 “출생축하금 재협의를 생활안정 중심의 실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청년정책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중앙, 종남, 노송, 인후3동)은 창고형 대형약국 확산에 따른 시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 대형약국’이 복약지도 공백,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면허대화와 자본개입 점검 등 지역 약국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등 공동체 정신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외국 영상물 유치 강화를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JRI 정책브리프 제11호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연구원이 수행해 온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외국 영상물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법적 기반 강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

치 지원’ 명시) △예산 확대 및 초대형 프로젝트 대응 체계 구축 △다층형 가산(加算) 인센티브 구조(지역 고용·채류, 국내 후반작업, 관광·홍보, 친환경 촬영 등 성과 발생 시 가산) △중장·지방 연계 원스톱 행정 체계 도입 △국가 단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기반 성과관리·환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에서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단순한 제작 지원 제도를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 연계성이 높은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 성료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10개 도서관에서 운영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는 책놀이와 책 읽어주기, 부모교육특강, 연령별 책구미 배부 등을 통해 영·유아의 생애 초기

독서 습관 형성과 더불어 책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된 올해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에는 총 442명이 참여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